

Verdict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연속 순유입과 반감기 공급 쇼크가 결합된 구조적 수급 불균형이 가격 하방 경직성을 지지하며, 7.3만 달러 돌파 시 대규모 숏 스퀴즈가 촉발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 기관 자금의 지속적 유입과 T10Y2Y 스프레드 0.55의 정상화가 경기 연착륙 시나리오를 뒷받침하며,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포지셔닝에 반영되고 있음. BTC 현재가 71,792달러로 7.3만 달러 숏 스퀴즈 트리거에 근접하면서 상방 돌파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음.

직전 판정의 무효화 조건이었던 'BTC 1개월 수익률 +10% 이상 가속화'가 현재 +11.1%로 명확히 충족되었음. 이는 직전 판정 시 +4.3%에서 +11.1%로 급격한 모멘텀 가속이 발생한 것으로, 기존 약세 판정의 핵심 전제가 구체적으로 깨졌음을 의미함. BTC 현재가 71,792달러는 직전 판정 시점 대비 유의미한 반등이며, 7.3만 달러 숏 스퀴즈 트리거에 매우 근접한 위치임. 다만, 3개월 수익률이 여전히 -21.27%이고 고점 대비 -25.93% 낙폭이 유지되고 있어 구조적 회복이 완료된 것은 아님. VIX 27.19(1개월 수익률 +30.6%)가 여전히 '공포' 영역에 위치하고, US10Y 4.28%(1개월 +4.41%), DXY 100.36(1개월 +3.54%)이 동반 상승하여 금리·달러 환경이 BTC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은 상방 랠리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요인임. 그러나 1개월 수익률 +11.1%의 모멘텀 가속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무효화 조건을 정확히 충족했으므로, 뷰 전환 마찰 규칙에 따라 기존 약세 판정에서 강세 판정으로의 전환이 정당화됨.

Action: BTC 숏 포지션 청산 후 롱 전환 권고. 1개월 수익률 +11.1%의 모멘텀 가속과 7.3만 달러 근접이 확인된 만큼, 숏 스퀴즈 동반 상방 돌파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BTC 비중 확대.

Invalidation: BTC 1개월 수익률이 향후 2주 내 +5% 이하로 재차 감속할 경우 강세 전환 판정을 전면 재검토

Risk Factors: 매크로: VIX 27.19(1개월 +30.6%)의 '공포' 영역 지속과 US10Y 4.28% 상승이 위험자산 전반에 디레버리징 압력을 가하며 BTC 랠리의 지속성을 약화시킬 가능성, 기술적/포지셔닝: 3개월 수익률 -21.27%, 고점 대비 -25.93% 낙폭이 여전히 깊어 7.3만 달러 부근에서 대규모 물량 저항(매도벽)이 형성될 가능성, 이벤트: 이란-이스라엘 지정학적 갈등 격화 또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 입법 지연이 기관 자금 유입 모멘텀을 급격히 차단할 가능성

View Change: 직전 판정(2026-03-14)의 무효화 조건이었던 'BTC 1개월 수익률 +10% 이상 가속화'가 현재 +11.1%로 명확히 충족됨. 직전 판정 시 +4.3%에서 현재 +11.1%로 모멘텀이 급격히 가속되었으며, 이는 기존 약세 판정의 핵심 전제인 '모멘텀 감속 고착화'를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증거임. 뷰 전환 마찰 규칙 (1)항 '직전 invalidation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증거로 입증'에 해당하므로 short→long 전환이 정당화됨.

Macro Picture

Regime: transition

Key Themes: Spot ETF Continuous Inflows, Post-Halving Supply Shock Reality, Monetary Policy Pivot Uncertainty

Dominant Narrative: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5거래일 연속 순유입과 반감기 이후 공급 부족 현상이 결합되어 가격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음. 비트코인이 7.3만 달러 돌파 시 약 4.3억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 청산이 발생하며 강력한 숏 스퀴즈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배적임.

Reality: VIX 27.19의 높은 변동성과 US10Y 4.28%는 시장의 불안을 시사하나, T10Y2Y 스프레드가 0.55로 플러스 권에 안착하며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임. CPI 327.46을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잔존함에도 연준의 금리 인하 단행은 실질 금리 하락을 유도하여 비트코인의 유동성 환경을 개선시키는 중임.

Hypotheses

A (Market Right)

ETF 5거래일 연속 순유입과 반감기 공급 쇼크가 결합된 구조적 수급 불균형이 VIX 27 수준의 매크로 불안을 압도하며, 7.3만 달러 돌파 시 4.3억 달러 규모 숏 스퀴즈가 촉발되어 BTC가 단기 급등 랠리를 시현함. 연준의 금리 인하로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T10Y2Y 스프레드 0.55의 플러스 전환은 경기 연착륙 시나리오를 지지하며, 이는 위험자산 회피 심리의 점진적 완화로 이어져 기관 자금의 BTC 유입을 가속화시킴. 1개월 수익률 +4.3%에서 +10% 돌파로의 모멘텀 가속이 임박한 변곡점에 해당함.

ETF 순유입의 지속성과 반감기 후 일일 신규 공급량 반감(~450 BTC→~225 BTC)이 만들어내는 수급 격차는 과거 반감기 사이클에서 6~12개월 내 신고가를 만들어낸 구조적 동인과 동일함. VIX 27은 '공포' 영역이나 T10Y2Y 0.55의 정상화와 연준 금리 인하라는 유동성 완화 조건이 결합되면, 높은

VIX는 오히려 숏 포지션 과적에 따른 스퀴즈 연료로 전환될 수 있음. 1개월 수익률이 +6.58%에서 +4.3%로 후퇴한 것은 숏 스퀴즈 직전의 에너지 축적 (compression) 구간으로 해석 가능함.

B (Market Wrong)

VIX 27.19의 높은 변동성과 CPI 327.46의 끈질긴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BTC 1개월 수익률이 +6.58%→+4.3%로 모멘텀 감속이 확인된 상황에서 ETF 유입과 숏 스퀴즈 내러티브는 구조적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에 역부족이며, 3개월 수익률 -22.3%와 고점 대비 -27.19% 낙폭이 시사하는 약세 구조가 지속됨. 채굴업체 MARA의 대량 매도와 지정학적 리스크(이란-이스라엘)가 기관 유입 효과를 상쇄하며, BTC는 추가 하방 압력에 노출되어 있음.

직전 2회 연속 판정에서 무효화 조건으로 설정한 'BTC 1개월 수익률 +10% 이상 가속화'가 충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6.58%→+4.3%로 오히려 후퇴하며 모멘텀 감속이 명확히 확인됨. 이는 뷰 전환 마찰 규칙상 기존 약세 판정 유지를 강하게 정당화하는 결정적 증거임. VIX 27 수준의 높은 변동성은 위험자산 디레버리징 압력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의미하며, ETF 순유입이 5일 연속이라 해도 3개월 누적 -22.3% 하락분을 복원하기에는 규모와 지속성이 부족함. 채굴업체의 매도세는 반감기 공급 쇼크 내러티브와 직접적으로 모순됨.

Key Question: BTC 1개월 수익률이 향후 2주 내 +10% 이상으로 가속화되며 ETF 순유입이 10거래일 이상 연속 지속되는가, 아니면 모멘텀 감속(+4.3% 이하)이 고착화되며 VIX 25 이상의 고변동성 환경이 유지되는가?

Tensions

7.3만 달러 돌파 시 대규모 숏 스퀴즈를 기대하는 시장의 낙관론과 VIX 27.19의 높은 변동성이 시사하는 거시적 불안감이 충돌함.

0.70

Narrative: ETF 5거래일 연속 순유입과 4.3억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 청산 기대감에 기반한 강력한 상방 랠리 전망

Reality: VIX 27.19의 높은 수치와 CPI 327.46 기록 등 끈질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위험자산 회피 심리 잔존

BTC

VIX

US10Y

반감기 공급 쇼크에 따른 하방 경직성 내러티브가 실질적인 채굴업체의 매도세 및 비관적 가격 전망과 대립하고 있음.

0.60

Narrative: 반감기 이후 공급 부족 현상과 ETF 수요가 결합되어 가격 하락을 방어할 것이라는 믿음

Reality: 채굴업체 MARA의 무더기 매도세 및 일부 전략가의 5만 달러 붕괴 가능성 제기 등 펀더멘털 약화 우려

BTC

NDX

디지털 금으로서의 자산 가치 인정 기대감과 달리 지정학적 리스크 및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오프 현상이 관찰됨.

0.40

Narrative: 블랙록 등 기관의 자금 유입을 통한 '디지털 금' 지위 공고화 및 중동 긴장 시의 제한적 영향 기대

Reality: 이란-이스라엘 갈등 등 지정학적 위기 시 방어선 붕괴 경험 및 美 상원 암호화폐 입법 지연에 따른 제도적 불확실성

BTC

GOLD

DXY

Alternatives

BTC - 비트코인 (Bitcoin)

1개월 수익률 모멘텀 가속(+11.1%)과 7.3만 달러 저항선 근접에 따른 대규모 숏 스퀴즈 발생 시 직접적인 가격 급등 수혜.

XAU/USD - 금 (Gold)

VIX 27.19의 높은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 지위 공고화와 함께 안전 자산으로서의 동반 수요 상승.

COIN - 코인베이스 (Coinbase Global Inc.)

ETF 5거래일 연속 순유입 및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와 기관 자금 유입 가속화의 직접적인 제도권 수혜주.

Eval Scores

PASS

Overall 5.0

Tension 5

Hypothesis 5

Evidence 5

Feedback: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분석 파이프라인 결과를 보여줌. 특히 '뷰 전환 마찰 규칙(View Change Friction Rules)'을 적용하여 직전 판정의 무효화 조건(1개월 수익률 +10% 돌파) 달성 여부를 추적하고, 이를 근거로 Short에서 Long으로의 포지션 전환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한 점이 탁월함. VIX 27.19라는 높은 변동성 지표와 CPI 수치 등 거시적 불안 요소를 단순 무시하지 않고, 숏 스퀴즈의 에너지원으로 해석하거나 리스크 요인으로 병치하여 균형을 잡음. 다만, VIX가 27 수준의 고공행진을 기록 중임에도 강세론(A)을 채택한 만큼, 향후 'VIX 하락 추세 전환 여부'를 데이터 쇼핑리스트의 핵심 검증 항목으로 설정하여 모니터링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MARA 등 채굴업체 매도세가 단순 '우려'를 넘어 실제 거래소 유입량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온체인 데이터의 정량적 비교 수치가 보완된다면 가설 B의 반증 가능성이 더욱 정교해질 것임.

시장의 뷰: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연속 순유입과 반감기 공급 쇼크가 결합된 구조적 수급 불균형이 가격 하방 경직성을 지지하며, 7.3만 달러 돌파 시 대규모 숏 스쿼츠가 촉발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 기관 자금의 지속적 유입과 T10Y2Y 스프레드 0.55의 정상화가 경기 연착륙 시나리오를 뒷받침하며,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포지셔닝에 반영되고 있음. BTC 현재가 71,792달러로 7.3만 달러 숏 스쿼츠 트리거에 근접하면서 상방 돌파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음.

결론: ETF 5거래일 연속 순유입과 반감기 공급 쇼크가 결합된 구조적 수급 불균형이 VIX 27 수준의 매크로 불안을 압도하며, 7.3만 달러 돌파 시 4.3억 달러 규모 숏 스쿼츠가 촉발되어 BTC가 단기 급등 랠리를 시현함. 연준의 금리 인하로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T10Y2Y 스프레드 0.55의 플러스 전환은 경기 연착륙 시나리오를 지지하며, 이는 위험자산 회피 심리의 점진적 완화로 이어져 기관 자금의 BTC 유입을 가속화시킴. 1개월 수익률 +4.3%에서 +10% 돌파로의 모멘텀 가속이 임박한 변곡점에 해당함. [HIGH]

직전 판정의 무효화 조건이었던 'BTC 1개월 수익률 +10% 이상 가속화'가 현재 +11.1%로 명확히 충족되었음. 이는 직전 판정 시 +4.3%에서 +11.1%로 급격한 모멘텀 가속이 발생한 것으로, 기존 약세 판정의 핵심 전제가 구조적으로 깨졌음을 의미함. BTC 현재가 71,792달러는 직전 판정 시점 대비 유의미한 반등이며, 7.3만 달러 숏 스쿼츠 트리거에 매우 근접한 위치임. 다만, 3개월 수익률이 여전히 -21.27%이고 고점 대비 -25.93% 낙폭이 유지되고 있어 구조적 회복이 완료된 것은 아님. VIX 27.19(1개월 수익률 +30.6%)가 여전히 '공포' 영역에 위치하고, US10Y 4.28%(1개월 +4.41%), DXY 100.36(1개월 +3.54%)이 동반 상승하여 금리·달러 환경이 BTC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은 상방 랠리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요인임. 그러나 1개월 수익률 +11.1%의 모멘텀 가속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무효화 조건을 정확히 충족했으므로, 뷰 전환 마찰 규칙에 따라 기존 약세 판정에서 강세 판정으로의 전환이 정당함.

→ BTC 숏 포지션 청산 후 롱 전환 권고. 1개월 수익률 +11.1%의 모멘텀 가속과 7.3만 달러 근접이 확인된 만큼, 숏 스쿼츠 등반 상방 돌파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BTC 비중 확대.

무효화: BTC 1개월 수익률이 향후 2주 내 +5% 이하로 재차 감속할 경우 강세 전환 판정을 전면 재검토

대안: BTC: 1개월 수익률 모멘텀 가속(+11.1%)과 7.3만 달러 저항선 근접에 | XAU/USD: VIX 27.19의 높은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비트코인의 '디 | COIN: ETF 5거래일 연속 순유입 및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

